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저희는 샤스타 컬리지라고 조그만 대학에 3주간 파견 되었습니다. 샤스타 컬리지는 레딩이라는 소도시에 있으며, 레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대학 및 주변의 분위기는 한적한 시골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대체로 정이 많고 친절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총 2개 입니다. 하나는 웹디자인 수업, 나머지 하나는 esl수업입니다. 두 수업 모두 현지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들과 같이 듣습니다. 웹디자인 수업은 우리들만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마지막날에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웹페이지의 내용은 주로 필드트립에 관한 내용이며, 3주간 자신이 미국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고자 만들겁니다. 웹페이지를 만들때는 wordpress 라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게시물을 좀더 멋있게 꾸밀 수 있게 여러가지 코딩을 많이 배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Esl수업은 알차게 수업하지만, 수업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마지막날에 발표를 해서 그런지 수업도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양이 많지만, 덕분에 마지막날 발표할때 떨지 않고 평소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은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필드트립은 주로 레딩 주변에서 알려진 관광지로 다녔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튨립, 워터파크, 카약킹 등등이 있습니다. 주로 점심먹고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중심이라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웠습니다. ㄱ게다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진정한 미국문화를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다만, 물과 썬크림은 충분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레딩 지역이 평균 섭씨 40도로 더운 날씨인데다가 건조해서 적어도 저 둘은 필수입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레딩의 여름날씨는 매우덥습니다. 평균적으로 섭씨 40도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건조해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했고, 습도 낮을 때 특유의 끈끈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외선차단제와 각종 보습제품은 필수입니다. 피부가 건조한 분이시라면 더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건조해서 손바닥에 각질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매우 안전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정시간 마다 security 가 학교 캠퍼스 내를 차타고 돌아다닙니다. 현지에서 문제 걸릴 일만 안생기면 무탈하게 잘 지내다 올겁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는 순천향대 기숙사보다 훨씬 넓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Common이라는 주방이 제공이 되는데 그곳에 웬만한 조리도구와 음식들, 다과들이 비축되어 있어서 드시고 싶을때 조리해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식당음식은 그닥 건강한 음식은 아닙니다. 주로 빵등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 짜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라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한국음식이 그리우실거 같으시면 라면, 핫반 등등 가지고 가서 키친에서 조리해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입국심사때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물들 조심하시고, 가지고 가시기 전에 미국 식품관련 규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대중교통이 그닥 발달되어 있진 않습니다. 땅이 워낙 넓다보니 가까운 마트도 차로 10분거리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주로 현지에서 사귀 미국인 친구들 중 차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80만원	사전납부
외식비,놀거리,기념품	60만원	저는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노느라 지출이 있는 편입니다.
합계	243만 5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1. 비상약 및 저신에게 필요한 물건은 꼭 챙겨가세요. 거리도 멀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면 손해입니다.
2. 전기변환기 가져가세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110v를 쓰기때문에 전기변환기는 필수 중 필수 입니다.
3. 미국은 만 21세 미만은 술을 구입 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레딩은 소도시라 조그만 펍에 가도 ID카드 (우리나라 민증같은 것) 다 체크합니다. (정 분위기점 내고 싶으시다 하면 현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캠퍼스 밖에서 즐겁게 노세요)
4. 이리저리 많이 다니세요. 아무리 소도시라해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다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5. 건강 꼭 챙기세요. 더운 날씨인데다가 수업도 있고 필드트립도 거의 매일 있기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의실 내부에는 에어컨을 빵빵히 틀기 때문에 가디건 같은거 하나 가져와서 덮고 있어도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니 당연히 제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경험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위스키타운 카약킹



풍경1



카약킹 2



풍경2



카약킹 3



풍경3